

출장보고서 (미국 - 기회균형선발제)

I. 출장개요

- 출장자: 김영철 부연구위원(KDI)

- 출장국가: 미국

- 방문지역: 미국 교육성(워싱턴), Century Foundation(워싱턴 지부),
Columbia Univ.(뉴욕), Brown Univ.(프라비던스)

- 출장기간 : 2011년 05월 30일 ~ 06월 04일

- 출장목적: 원내 기본연구과제로 진행 중인 '기회균형선발제'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미국의 '기회균형선발제'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한국에 적용가능한 발전적인 정책모델들을 모색함.

- 면담자 명단:
<미국 교육성>
Gaby Watts (Upward Bound Program Officer, U.S. Department of Education)
Loretta Brown (Talent Search Program Officer, U.S. Department of Education)

<The Century Foundation>

Richard D. Kahlenberg (Senior Fellow, The Century Foundation)

<브라운 대학교>

Elizabeth A. Hart (Associate Director of Admission, Brown Univ.)

Eric Hunter (Admission Officer, Brown Univ.)

Kyung-Suk Kim (Senior Professor, Mechanical Engineering at Brown Univ. - A former member of the admission committee)

Rosa Minhyo Cho (Assitant Professor of Education, Brown Univ.)

<컬럼비아 대학교>

David Buckwald (Associate Director, Office of Undergraduate Admissions, Columbia Univ.)

II. 면담내용

Loretta Brown (Talent Search Program Officer, U.S. Department of Education)

- 텔런트 서치는 고등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취약 계층 내 개인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에게 학업, 커리어, 재무 측면의 카운슬링을 제공하고 그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교육을 지속, 완료할 수 있도록 격려함.
 - 또한 학자금 지원 가능성을 알려주고, 고등교육기관 입학 프로세스를 보조함.
 - 이 프로그램은 고등학교를 마치지 않은 참가자가 고등교육기관에 입

학하거나, 고등교육을 마치지 않은 참가자가 고등교육기관에 재입학하는 것도 지원함.

-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교육을 등록 및 이수하는 비율을 높이는 것임.

□ 이 프로그램은 개인지도, 커리어 탐색, 적성검사, 카운슬링, 멘토링, 워크샵, 고등교육기관 및 학자금 지원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 외에 금융 및 경제교육, 중등교육기관 재입학/중등교육기관 중퇴자를 위한 대체교육 프로그램/고등교육기관 입학 안내 및 지원 등의 서비스도 제공함.

- 이러한 활동은 영어가 능숙하지 못한 학생들, 취약계층 학생들, 장애가 있는 학생들, 위탁보호시설에 맡겨진 학생들 등을 대상으로 각각 특성화되어 있음.

Gaby Watts (Upward Bound Program Officer, U.S. Department of Education)

□ 업워드 바운드 프로그램의 목표는 참가자들이 중등교육과정 이수 및 고등교육과정 입학, 졸업 비율을 높이는 것임.

-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대학입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소득층 고등학생들과 부모 모두 학사학위가 없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함.

□ 이 프로그램은 수학, 실험과학, 작문, 문학, 외국어 강의와 과외교육, 카운슬링, 멘토링, 문화교실, work-study 프로그램, 경제교육 등을 제공함.

- 이러한 활동은 영어가 능숙하지 못한 학생들, 취약계층 학생들, 장애가 있는 학생들, 위탁보호시설에 맡겨진 학생들 등을 대상으로 각각 특성화되어 있음.

- 수학, 실험과학, 작문, 문학, 외국어 강의는 모든 업워드 바운드 프로

젝트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그 외에 연방정부 학자금 지원정보 제공, 중등교육기관 재입학 및 고등교육기관 입학 지원, 대체교육 프로그램 안내 등의 서비스가 추가될 수 있음.

Richard D. Kahlenberg (Senior Fellow, The Century Foundation)

- 미국의 대입제도: 미국의 연방정부는 대학입시에 대하여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으며, 주 정부도 몇 가지 원칙만 제시할 뿐 대학이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하고 있음. 특히,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정부가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으며, 전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김.

- 미국 우수 대학들의 공통적인 신입생 선발기준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
 - (1) 고등학교 교과성과와 지적 능력
 - ① 고등학교(9~12학년) 성적
 - 대학이 요구하는 교과목과 학점을 제대로 이수하였으며, 어떤 성적을 취득하였는가
 - Honors Class나 AP(Advanced Placement)과목을 수강하였는가 (지적 도전)
 - 고등학교 별 차등을 둠
 - ex) 캘리포니아: 표준화 학력검사 등을 토대로 고등학교를 9등급화
 - ② SAT
 - ③ 각종 경시대회에서의 수상
 - (2) 지도력, 품성, 봉사활동
 - 평가: 학생이 기록한 과외활동, 상담교사와 교과담당교사들이 평가한 내용을 종합

- * 학생 개인의 가정환경 등을 고려
 - : 입학사정관들로 하여금 학생이 졸업한 고등학교의 교육여건, 사회환경, 그리고 학생 개인의 가정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함
 - ex) 스탠포드: SAT 점수가 낮더라도 집이 가난하고 부모의 학력이 낮은 가정 출신 학생들의 점수를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 또한 두 학생 간에 60점 이하 (총점 1600점)의 점수 차이가 나는 것은 결코 지적 능력의 차이를 나타내준다고 생각하지 않음(학생의 자라온 환경과 연습 등에 의해 차이가 날 수 있다 생각)
- * 예체능 분야에 대한 소질과 능력도 고려
- * 신입생 선발시 다양성에 신경을 씀
 - 사회경제적으로 상류층학생들 뿐만 아니라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열심히 노력한 학생, 백인과 흑인, 미국 내에서도 가능하면 여러 개의 주에서 온 학생들이 뽑히도록, 그리고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의 세계 각국의 학생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
- * 입학사정관을 통한 선발(스탠포드, 버클리, 워싱턴 대학 모두 한 명의 지원자를 2명의 입학사정관이 검토)

David Buckwald (Associate Director, Office of Undergraduate Admissions, Columbia Univ.)

- 콜롬비아 대학의 입학결정: A commitment to **diversity**—of every kind—is a long-standing Columbia hallmark. Their financial aid program underscores our continued commitment to diversity, making a Columbia education even more accessible for students from every background. In an effort to address the nation’s ever widening preparation gap, Columbia has for many years focused significant resources on early college awareness outreach and helped to build knowledge around not only a Columbia education but higher education in general. The Admissions Office sponsors a number of initiatives that address multicultural recruitment and early college awareness.
- The Multicultural Recruitment Committee (MRC): The Multicultural

Recruitment Committee (MRC) is a student-run group who works with the Office of Undergraduate Admissions in recruiting students from under-represented populations. The MRC was formed in the 1960s by Columbia undergraduates to create a number of programs that addressed diversity and multiculturalism. Today, members of the MRC assist the admissions staff to identify, recruit and yield students from historically underrepresented groups (students of color, first-generation college students, families from high need backgrounds). Six undergraduate student interns serve on the MRC and provide a bridge between the Office of Undergraduate Admissions and the student body. They work closely with current undergraduates on outreach efforts and provide a vital role in the recruitment mission.

- [The Office of Financial Aid and Educational Financing: The Office of Financial Aid and Educational Financing](#) works with students and families to develop a plan to pay for college. Columbia is committed to meeting the full demonstrated financial need of all applicants admitted as first-year students. In our quest to make Columbia affordable for all students, the University recently implemented the following financial aid enhancements: all students eligible for financial aid from Columbia are packaged without student loans; students from families with incomes below \$60,000 do not have a parent contribution; and students from families with incomes between \$60,000 and \$100,000 have a reduction in their parent contribution. They believe cost should not be a barrier to anyone considering applying to or attending Columbia.

Rosa Minhyo Cho (Assistant Professor of Education, Brown Univ.)

- 미국 내 비영리단체인 퀘스트브릿지는 재능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과 명문대학 간의 중간자 역할을 수행함.
 - 이들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단일한 채널을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학, 장학금 수여기관, 고용주, 저소득층 학생 지원단체 등에 효과적으로 연결해주고자 함.
 - 퀘스트브릿지의 목표는 재능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최고의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을 높이는 것임.

- 퀘스트브릿지는 뛰어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미국 내 많은 명문대학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함. (2011년 현재 30개 대학¹⁾)
 - 파트너대학들은 ‘대학 연결 프로그램(National College Match Program)’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에게 4년간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며, 이 외에 별도의 장학금이나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

Elizabeth A. Hart (Associate Director of Admission, Brown Univ.)

Eric Hunter (Admission Officer, Brown Univ.)

Kyung-Suk Kim (Senior Professor, Mechanical Engineering at Brown Univ.)

- A former member of the admission committee)

- 미국의 입학사정관제는 지원한 이들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교육기회 격차를 전형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여, 역경에 대한 보상,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진학 독려,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 확충 등을 위해 노력함.

- 주요 IVY Leagues 대학들과 UC(캘리포니아 주립대) 계열인 UCLA 및 UC Berkeley 등은 Holistic Review를 입학전형에 채택하고 있

1) 퀘스트브릿지와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는 30개 대학의 명단은 다음과 같음: Amherst College, Bowdoin College, Brown University, Caltech, Columbia University, Dartmouth College, Emory University, Haverford College, MIT, Northwestern University, Oberlin College, Parsons The New School for Design, Pomona College, Princeton University, Rice University, Scripps College, Stanford University, Swarthmore College, Trinity College, University of Chicago, University of Notre Dame,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niversity of Virginia, Vassar College, Washington and Lee University, Wellesley College, Wesleyan University, Williams College, Yale University.

어, 객관적으로 검증된 소질과 능력뿐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배경을 극복하고 성취한 것들을 높이 평가하고, 이들의 대학교육을 통한 자기개발 역량 역시 보다 클 것으로 판단하여 입학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함.

□ [Texas Top 10% Law] 텍사스 주의 경우 저소득층 특히 소수계층 진학을 독려하기 위하여, 각 학교의 상위 10%에 드는 이들에게 텍사스 내의 어느 주립대이든지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법안 HB 588, 1997년 5월 통과)

□ 미국 대교협(The College Board)는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들과 관련 전문가들을 모아 다음과 같은 입학사정 원칙을 정리한 바 있음. 이는 학생의 잠재능력에만 주안점을 두는 한국의 입학사정관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Entitlement (모두에게 열린 고등교육권)

Higher education is an inalienable right and should be made available to everyone.

- Open Access (자격있는 모든 이들의 입학권)

College is a natural progression after high school and should be made available to everyone who is qualified.

- Meritocracy (잠재력과 소질에 따른 입학)

Access to higher education is a reward for those who have been most academically successful.

- Character (열정과 헌신, 사회봉사 의지에 따른 입학)

Access to higher education is a reward for personal virtue, dedication, perseverance, community service, and hard work.

- Enhancement (대학교육을 통한 혜택이 클 이들의 입학)

The goal of higher education is to seek out and nurture talent.

- Mobilization (취약계층의 입학 장려)

Higher education is the "great equalizer" and must promote social and economic mobility.

- Investment (사회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의 입학)

Access to higher education should promote the greater good

and further the development of society.

- Environmental/Institutional (대학 목표와의 부합 및 학생의 기여 가능성)

The admissions selection process is designed to meet the enrollment goals and unique organizational needs of the admitting institution while promoting the overall quality fo students' educational experience.

- Fiduciary (재정건정성을 도모하는 입학)

Higher education is a business, and access must first preserve the institution's fiscal integrity.

III. 국내 현안에 대한 시사점

- 우리나라 대학입학 선발제도의 보완을 통한 교육기회 형평성의 제고 및 인재육성의 효과성 증대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됨.
 - 現 교육개혁이 고교의 다양화와 대학의 학생선발권 강화 등을 통하여, 다양한 적성과 소질을 지닌 인재양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나, 이는 동시에 진보-보수 간 갈등의 격화로 이어지고 있음.
 - 적극적 대입선발제도의 도입은 교육개혁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리라 기대됨.
- '지역인재 선발제도'의 도입은 교육낙후지역 내의 우수인재들에게 우수대학 진학기회를 확대하여, 이들이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음.
 - '지역인재 선발전형'의 일환이라 할 수 있는 현행 농어촌학생 특별전형(1996학년도 도입, 입학정원의 4%이내에서 정원 외 선발)은 읍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 재학생을 주 대상으로 하므로, 도시 낙후지역 내 우수인재들을 선별·선발하는 기능은 수행하지 못함.
 - 2011학년도 4년제 대학의 입시에서, 읍·면·도서벽지 학생들에게 국한하여 입학정원의 약 3.3%인 12,633명을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예정

- '기회균형 선발제도'의 도입은 보편화된 사교육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빈곤층 자녀들에게 우수대학 진학기회를 확대시킴으로써, 계층간 교육투자 격차로 인한 기회균등성의 훼손을 보완하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층을 대상으로 한 정원 외 특별전형이 '기회균형선발제'라는 이름으로 2009학년도 입시부터 도입·시행되고 있으나, 그 규모가 극히 제한적임.
 - 4년제 대학의 경우, 모집인원의 약 1% 내외 약 4천명 수준. 예를 들어, 2010학년도 입시에서 서울대학교는 40-70명가량을 취약계층 대상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선발한 바 있음.
- 적극적 대입선발 정책과 함께, 저소득층의 학업열망 고취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 및 방과후 학습권 확대를 비롯한 교육투자 보조방식 등을 폭넓게 검토해 볼 필요
- 현재 우리나라의 입학사정관제를 적극 검토하여 부작용에 대한 보완과 함께 순조롭게 정착되도록 하고, 이전 단계 교육의 변화를 유도할 필요
 -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비판은 전형의 다양화로 인한 준비의 어려움, 새로운 사교육 조장, 공정성·신뢰성 우려 등인데, 기존의 교육 현실과 인식의 한계를 반영
 - 성적순 선발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방식임에도 학교 내에서 준비되지 못하고 컨설팅 사교육에 의존하게 만드는 현실, 객관적·정량적 평가에 대한 집착이 제도 정착의 장애 요인임.
- 입학사정관제의 철학과 원칙, 그리고 사회적 기여 방향을 면밀히 연구하고 이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의 정신이 바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들에 대한 교육을 보다 강화할 필요
- 영국의 공정진학국이나 미국의 TRIO 프로그램, 호주의 ESP와 같은 기회형평성을 증진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